자기가 자기 하는 걸 보고 있는데 남이 안 본다고 함부로 해서 되나요?

☞ A29면에서 계속

제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둘로 보지 말고 거기 맡기고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진실하게 갖고 거기 다 맡겨라 이거야.

또 타의에서 왔든 자의에서 나왔든 하여튼 한번 발현이 된 사람은 어떠한 그림자가 보이든지, 어떠한 걸 그 안에서 시키든지, 어떠한 것이 들리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되놔라 이거야, 또! 이차적으로 또! 거기다 맡기고 살아라 이거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응, 들리는 것도 거기서 들리게 하는 거고 보이게 하는 것도 거기서 보이게 하는 거고 시키는 것도 거기서 시키는 거니까.' 하고 거기다가 다시 맡겨라 이거야. 그걸 그대로 그냥, 바깥으로 보인다고 끄달리고, 들린다고 끄달리고, 시킨다고 끄달리고 이런다면 그건 노예밖엔 더 돼? 응?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기둥을 삼아 하늘을 받칠 수 있는, 땅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거지 아니, 그렇게 들어서 만날 귀신 장난 하다가 말 작정이냐고.

엊그저께 설법할 때는 이 인간이 공부를 하면 인간 이외의 참 광대무변한 에너지가 자기한테 있고 재료가 있으니, 우주 천지가, 이 세상이 다 가설되고 직결돼 있으니까 거기에까지 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알려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면 요 생활 속에서만 있는 줄 아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목표가 어떤 건지 좀 더 알고나 해야지 아무리 이론이 좋고 학식이 좋다 하더라도, 권세가 좋다 하더라도 이 마음법은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따라설 수가 없어. 천체 물리가 터질 수 있고, 천체를 감응할 수가 있고, 천체를 돌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될 수 있고 보게 될 수 있고 듣게 될 수 있고…. (중략)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몸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살면 백 년을 사오, 천 년을 사오?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을 다 건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 능력이 생겨서 요다음에 훨훨 벗고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신다면 어딘들 못 가고 어딘들 보지 못하고 어딘들 듣지 못하겠소. 듣지 못하는 과학자들한테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그, 미쳤다고 하겠지. 그러나 미쳤다곤 하지만 아, 그럴 수 있겠다는 느낌은 느낄 거라고. 지금 얼마나 정신계로 바짝 들어서는 판국인데. 왜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수억겁이라도 보낼 수 있는, 빛보다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괜히 이거를 눌러서 전파를 보내겠소? 허허허…. 생각을 해도 참 우습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생활 속에서 걸음을 걸으면서,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하면서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도 뛰면서 우리는 그렇게 옷 벗기 전에, 이 몸이 쇠약하기 전에 다시 좀 더, 내가 사는 동안까지는 아픈 것도 낫게 하고, 가정에서 불상사 있는 것도 화합을 시키고, 자녀들도 잘못 나가는 거를 올바로 세워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지. 그 능력을 길러 놓으면 하나하나 외축되는 게 없어.

쓰레기 하나를 버리더라도 '아,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그것을 냄새 안 나게 싸서 다이렇게 해서 똘똘 말아서 꼭 매서 그냥 넣고, 마른 건 마른 것대로 이렇게 버리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겨. 그래서 남한테 해를 주지 않는 거지. 비록 가난해서 쓰레기는 치우나 냄새 좀 덜 나면 그 치우는 사람도 좋을 거고 병 안 들고, 얼마나 좋은가? 우리네가 조금만 조심한다면….

내가 무슨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고 하겠지만, 그 마음공부라는 게 어느 조그만 거 하나 빠지는 게 있나? 그저 남이 안 본다고 함부로 해서 되나? 자기가 자기 하는 걸 보고 있는데, 허허허…. 안 그렇소? 아, 자기가 병원에 가서 누워서 수술을 하는데 자기가 내려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아, 인젠 살았구나.' 그랬대. 허허허…. 자기가 자기 몸뚱이를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곤 잘못 저거하면 손을 탁 쳐서 손을 옮겨 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 것이 눈에 현상히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살았다, 인제는. 아이, 한마음 주인공 당신이, 바로 이 몸 끌고 다니는 당신이 자기 몸을 이렇게,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울었다는 거야. 이렇게 소중하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당신이 있는 거를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울었다는 거지.

그거는 남편도 되고 내 전 조상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부처도 되고 여러 가지, 엄마도 되고 그런 거야, 그게 본래. 자기 몸 자기가 죽이는 법 없어! 자기 주인공을 믿는데 어찌 자기, 즉 말하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믿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죽일까, 자식을? 몸뚱이는 자식과 같은 거지.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맡기고 그런다면 육신의 모든 이 생명들, 의식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 주면서 아이구 세상에, 요리로 가면 자식이 되고 저리로 가면 아비가 되고 그러니 이게 연방 하나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로.

이리로 가면 이리로 되는 대로 하나로 돌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는 대로 하나로 돌고, 일을 할 때는 자식으로서 하나로 돌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로 하나로 돌고야, 글쎄, 뭐가 부족해서 여기 끄달리고 저기 끄달리고, 들리는 거에 끄달리고 보이는 거에 끄달리고, 온통 야단법석을 해 가지고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이거지.

열 명, 스무 명, 천 명, 만 명, 일억 명, 십억의 귀신이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 분신이야, 자기 분신. 자기 분신이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것을 전부 합류화시켜서 전부 항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도 있잖아? 모든 게 전부 하나로, 자기니까 자기한테 넣는 거야. 거기에 놓는 거야. 그렇게 넣어서 나중에는 다 이게 제도가 돼서 보살이 된다면 그때는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더니 인제는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더라." 이런 게 나오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홀히 해서 되나?

어떤 스님네들은 그러지. 스님은 신도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자상하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시느냐고. 스님네들이나 가르치시라고. 아, 이러는 스님네들이 있지, 저 다른 데. 그런데 스님네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이다음에 큰 회사를 차려서 중생을 제도하면서, 이런 공부를 가르치면서 해 나가도 중의 행이요, 보살행이요, 또 머리 깎고 중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도 행이라 이거야.

어떤 두 형제가 중이 돼 가지고 있으니까 사형 사제가 되지. 이 만법을 깨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 나라에서 태자가 생기질 않으니까 가서 빌고 빌었어. 빌고 빌고 천일기도를 하고 온통 야단법석을 하니까 "얘, 중생들을 위해서 어떡하니?" 사형과 사제가 둘이 앉아서 "아유, 난 나가기 싫은데, 틀어서 망건 쓰고 갓 쓰고 아유, 버선 신고 이러기 싫은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지옥이 아닌가." 이러고선 둘이 서로 싫다고 싫다고 하니까 구지비끼리를 해서 뽑았단 말이야.

근데 아우가 걸렸거든. "아이구, 이거 할 수 없지, 뭐, 형님."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서 옷을 벗고 망건 쓰는 데로 갔대요. 허허, 나라로. 그래서 태자가 없으니까 대신 자기가 그렇게 나가 주는 그런 자비도 있어. 그렇게 그런데 용건만 얘기하지 그냥 웬걸 다 늘어놓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왜 자기 자신들의 등불이 밝다는 거를 모르고 그렇게 못 믿고 컴컴하게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등이 있어서, 자연적인 등이 있어서, 인등이 있어서 항상 밝게 그렇게 켜져 있는데 그거를 못 믿고 남의 등이 더 크고 남의 등이 더 밝고 그런 줄 알고 왜 그렇게 그럽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저거 한다면 전력을 더 넣으면 되고, 그러게 한마음으로 "아이, 스님. 제가 모자라서 이렇습니다." 용건만 '이러합니다' 하고 그냥 대답하거나 말거나 뽕하니 달아나가면 될 거를, 왜 그것을 대답을 들으려고 하고 온통 야단법석이냐고. 귀가 먹었나, 내가? 말만 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되는 거야, 용건만 그냥 간단히. 그래야 나도 일을 하지! 자꾸 날 붙들고 그런다면 자기가 말해 놓고 내가 어떻게 해? 여유가 있어? 그런 여유가 없는 건 아니지마는 자꾸 붙들고 그러면 외려 그게 무효가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소금 팔던 사람을 자꾸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돈도 없고 가난해서 당장 소금 한 그릇 이고 나가서 팔아야만 죽이라도 쒀 먹어. 남편은 정신분열증을 앓지, 응? 자식들은 고통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그렇게 편안하고 참, 싱그럽고 도도하게 흘러 돌던, 정말 자유스러운 산 부처가 그거를 다 벗어 버리고 지옥고로 들어간 거야, 원하니까. 부처님 법이 이런 거라고.

그런데 남을 해치는 줄도 모르게 해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며 불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조심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나한테 그런 병도 안 오고 남한테 그런 병도 안 가고, 뿌리를 길러 줄 수 있는 그 여건이 그냥 스스로 와, 벌써.

요 한마디만 하고요. 어떤 분은 척 보니까 처음 왔는데도 그 마음이 그렇게 그럴 수가 없어. 나한테 자주 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 척 보면 하나가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는 그쪽이 부족하면, 광력이 부족하면 광력이 갈 것이요, 자력이 부족하면 자력이 갈 것이요, 통신이 안 되면 통할 것이요, 모두가, 불 켜는 데 전력이 부족하면, 마음을 밝히는 데 전력이 부족하면 전력이 갈 것이다 이거야.

우리가 살면 백 년을 사오. 천 년을 사오?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을 다 건질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 능력이 생겨서
요다음에 훨훨 벗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돼야죠.

많지. 그러니까 소금 장수를 하다가 너무 무거운 것만 이고 다녀서 자기는 자궁암을 앓지. 이러니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극단에 처해져 있으면 자기 병이 뭐 어떻고 어떻고 이런 생각 할 겨를이 없다고. 지금 막 남편은 방에다 가둬 놓고 텐트를 치고서 거기다가 자식들을 넣고 이러고 다니는 판국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안 팔고 가면 벌써 애들이 굶을 지경인데 자기 병이고 뭐고 자기 남편이 그렇다 뭐, 이런 생각 할 여지가 없어. 오면 소금 한 공기 탁 퍼 놓고 "스님! 아범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나는 또 자궁암이랍니다." 그러곤 그냥 뭐, 이유를 불문에 부치고 "글쎄, 그렇답니다." 그러고 남의 말 하듯 하곤 그냥 달아나가.

허, 얼마나 갸륵하오. 세상에, 갸륵한 거보다도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나 역시 멍멍히 그냥 쳐다보고, 멍멍히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지,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인생이라는 것이 엿가락같이, 고무줄같이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천차만별의 도깨비장난 같은 이런 세월 속에서 아이구 참, 기가 막혀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고.

그런데 삼 일이 지난 뒤에 또 소금을 한 다라를 이고 와서는 또 공기에다 하나 놓고 껄껄껄 웃으며 "스님, 아비도 많이 나았고요, 저도 자궁암이, 글쎄, 오진을 했다나요? 나았어요." 그러고서는 또 가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급하게 돌아가는 거라고.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탁 치받치면 그렇게 여러분처럼 여유 있게 아이구, 이런 게 이렇게 속 썩이고 이런 게 이렇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급하면 그럴 여지가 없죠. 그 뭐, 얘기하고 앉아 있을 사이가 있나요? 외려 그게 그분들한테는, 너무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는 순간, 아까 얘기했듯 그렇게 한마음이 되고 모두가 한데 뭉쳐지니, 그것이 속에서 그대로 광력으로 그대로 그냥 병을 낫게 하고 그러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사의한 문제지만 불가사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 이 소립니다.

그럼 인제 그렇게들…, 요새 내리내리 이렇게 말하는데 좀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해 보시고 실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열심히 해 봅시다, 어디. (중략)

※위 법문은 1991년 8월 20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주)보광석재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진심으로 감축드리오며, 부처님의
가피가 온누리에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표이사 김한열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한 이래로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 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매순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입니다.

부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도량탑

서울 조계사 팔각십층석탑

하동 쌍계사 석조석가모니대불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시장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8~9 FAX : 054-955-8890 E-mail : bkstone601@naver.com